

초록번호 10-1

제 목	국 문	해외유입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과 성향		
	영 문	Cognition and inclination of doctors about ongoing program for imported infectious disease control		
저 및 소 속	국 문	전진호, 엄상화 , 고원규 ¹ , 이종수 ²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기생충학교실 ¹ 국립보건원 해외유입전염병 관리센터 및 의동물과 ²		
	영 문	Jin-Ho Chun, Sang-Hwa Urm, Weon-Gyu Kho ¹ , Jong-Soo Lee ²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arasitology¹,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i> <i>Center for Imported infectious Disease Control, National Institution of Health²</i>		
분 야	역학	발 표 자	엄상화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본 연구는 해외유입전염병의 관리를 위해 의사들의 해외유입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인지도와 견해, 환자의 진단, 치료, 보고와 관련한 제반 업무의 특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전국 6개 대도시 소재 대학 및 종합병원 136개소, 병원 161개소, 의원 203개소 등, 총 500개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현행 해외유입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인지도와 개선 방안 등에 관한 견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설문은 1997년 8월부터10월까지 우편으로 배포, 회수하였으며, 응답율을 높이기 위하여 무응답자와 불성실 답변자에 대하여 2회의 재배포와 전화상담을 하였다.</p> <p>수집된 자료는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때 PC SAS(ver 6.12)를 이용하였다.</p>				

3.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7세, 의과대학 졸업연도는 80년대 이전이 56%를 차지하였다. 전공은 소화기학이 30%로 가장 많았고 감염병학은 3%에 불과하였다. 감염병 전담의사의 보유는 병원규모의 크기와 관련이 있었다. 해외유입전염병 관리규정은 응답자의 43%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지원 서비스는 27%에서, 치료용 희귀의약품 무료 제공 프로그램은 16%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98%가 국가차원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40%가 23종의 관리대상 질병 중 한가지라도 실제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 때 7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질병 발생자를 상급기관으로 이송하기를 원하였으며, 선호하는 이송기관은 대학병원, 국립기관의 순서였다.

환자 발생시 정확한 진단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보고 과정이 복잡하다, 보고 후 역학조사 등의 과정이 번거롭다가 많았으며, 보고체계의 개선점으로는 간편화와 홍보 강화라는 의견이 많았다. 관리규정 인지도와 말라리아 진료 경험에서는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감염병 전담의사가 있는 곳 일수록 인지도($p < 0.05$)와 경험률($p < 0.01$)이 높게 나타났고, 관리대상 질병에 대한 인식도는 나이가 젊을수록($p < 0.01$), 졸업연도가 최근 일수록($p < 0.10$) 높았다. 환자 진료에 대한 성향은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p < 0.01$), 나이가 젊을수록($p < 0.01$), 감염병 전담의사가 있는 경우가($p < 0.01$) 직접 진료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고찰

1994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해외유입전염병의 관리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고, 특히 희귀의약품 무상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경우는 16%에 불과하였다. 대조적으로 대상자의 98%는 국가차원의 관리의 필요성을, 88%는 국가기관의 진료가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므로 필요성에 비해 시행 4년을 넘긴 현재의 관계 규정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전염병을 직접 진료하겠다는 의사는 3%에 불과하였고, 97%가 전문기관과의 협조와 이송을 선택하였다. 협조 또는 이송 기관으로서는 대학병원, 국립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병원 또는 국립기관과 일선 의사들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지역별로 환자가 집중되는 중점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유입전염병은 일반 질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희귀한 질환인 관계로 관심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심도 미비로 인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관리규정의 시행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